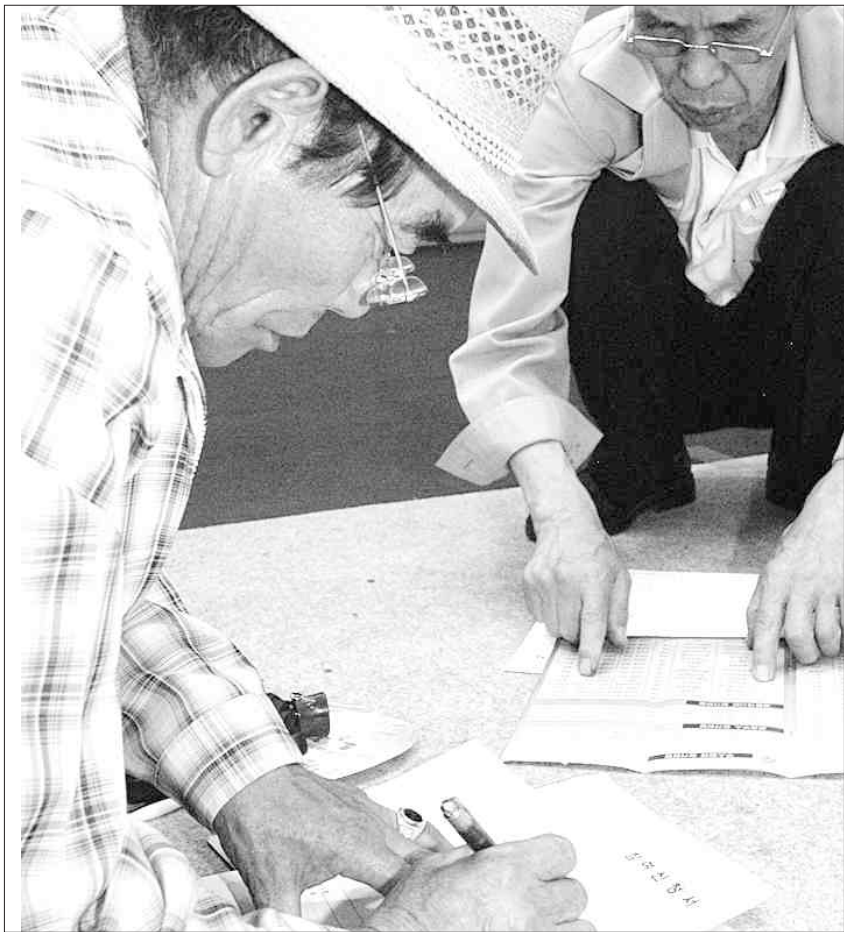


사건기자의 단상

나이든게 무슨 죄?



최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았다가 바닥에 쪼그린채 이력서를 쓰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한 자 한 자 공들여 썼던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 보더니 새 이력서를 꺼내 다시 쓰더군요. 쓰고 또 쓰고 반복하는 어르신들, 무척 낯을 찡찡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마련된 일자리 대부분이 경비·청소·주유원 등입니다. 월 급여도 20만~120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런데도 행사장에 모인 고령자들은 1만여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50~60대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이든 게 무슨 죄입니까. 젊었을 때는 인정 받으며 살았고, 자식들도 출몰이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도 했는데 퇴물 취급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 일 없이 노는 것, 정말 힘을 짓습니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너는 항상 젊을 줄 아느냐"는 푸념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서 지금,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정부, 기업 모두의 의무인 것 같네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조연옥 <구례초등학교>

몇 년 전 새 학년이 시작되던 날, 한 어머니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반이 된 자기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했다. 당황스럽고도 마음이 씁쓸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개학식을 하며 학급과 담임 발표를 마치고 새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아무튼 전학 이유가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는 전학을 갔고 일주일만 지내는 동안 준이(가명)라는 아이가 눈에 자주 띄었다. 체격은 왜소했

마무리 되었다. 교직 생활 동안 겪은 일 중 가장 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이 일이 있는 후 '친구를 사랑하자'는 주제로 학급회의가 열렸고, 친구들끼리 존댓말 쓰기가 결정되었다. 나는 인사를 주고 받을 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자고 제의했다. "x x씨, 사랑합니다!" 하고 아침 인사하며 친구들과 하루를 시작하였고, 내가 교실에 들어서면 바로 공수 자세로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밝고 싱그러운 모습이 지켜가는 나의 삶을 신명나게 해주었다. 화를 내려다가도 존댓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 서로 슬며시 웃었고, 속스러워서 잘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 습관을 아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눈빛이 강한 준이의 얼굴도 보이지 않게 바뀌어 가고 나는 준이를 계속 관찰하였다. 새로운 인사 습관에 적응해가는 친구들 속에서 이상한 말을 주고받는 외국인을 바라보듯 혼자 빙빙 돌며 관찰하던 준이의 눈가에도 차츰 웃음이 깃들고, 머리를

"사랑합니다!"

지만 오래 친구들보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고 성격도 우수하나 친구들과 부딪치며 자주 싸우는 모습이 나를 긴장시켰다. 새 학년 첫 날 전학 간 그 아이를 준이가 샤프심으로 찔러 부딪치며 상당히 시끄러웠고, 서로 조바심내며 1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 학년 담임에게 전해 듣고서야 나는 그 아이가 왜 전학을 갔는지 알 것 같았다. 학급 편성을 할 때 '두 아이를 다른 반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반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준이가 더욱 신경 쓰였다. 5월 중순 어느 토요일엔, 한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 자기 아이가 준이와 장난치다가 다쳐서 CT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토하며 계속 메스껍고 어지러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안절부절 안정이 되지 않았다. 그 날부터 사건이 수습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개입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10여일 만에 사건이

급적이면서도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익혀서 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모습에서 희망을 느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 아이들도 준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그 이후로 준이는 아무 말 없이 1년간 학급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을 했고, 이윽고 졸업을 하여 나와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학급 아이들끼리 존댓말을 쓰게 하고, 꽃이를 표창을 주고 받으며 등교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인사 지도를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공수 자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입술에 양손을 대다가 머리 위로 올려 고사리 손을 반짝거리며 하트 모양을 그리며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한다. 그 인사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는 2학년 1반이구나." 하시며 누구나 알아보고 "나도 사랑해!"하고 인사를 받아 주고, 배식 시간에는 맛있는 것을 하나씩 더 준다고 자랑을 하며 아이들이 재미있어 더욱 신나게 인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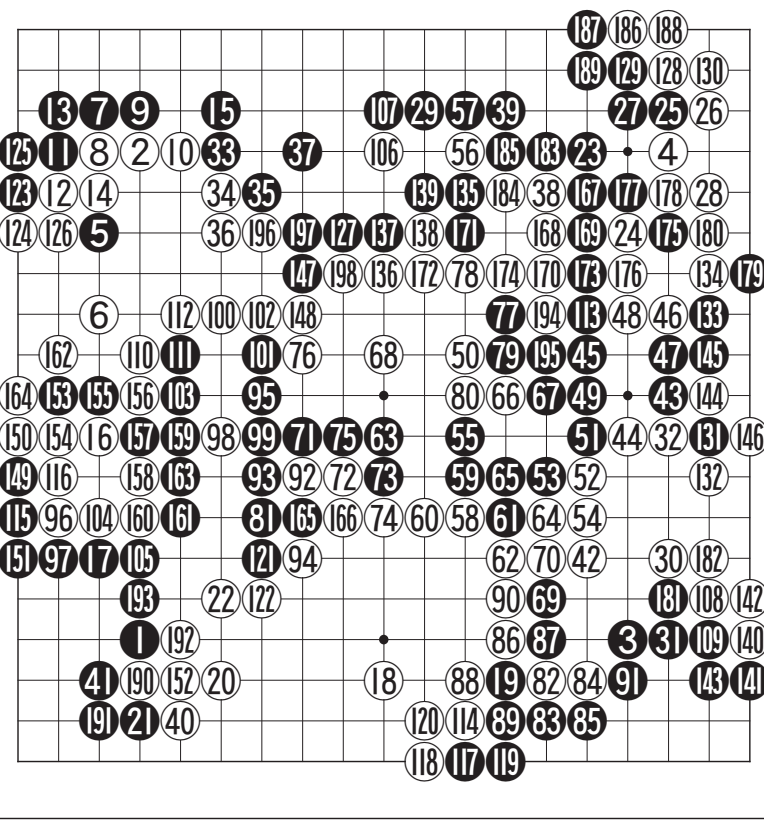
뉴스퀴즈

- 70. 세계적 여성인권 운동가와 여성학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26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 기간에는 아프가니스탄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말라리야 조야,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이스라엘 여성 루치마 마론, 파키스탄의 세계적 여성운동가 무크타르 마이 등 세계적 민주 인권 여성운동가 등 국내외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①세계여성평화포럼 ②제주 평화포럼 ③참여정부 평가포럼 ④정부 혁신 세계 포럼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음 5월 12일 辛卯)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June 26th.



제16회 광일백 직장대항 단체 2회전 끝내기의 어려움 총보(1~198) 백 유병수 5단 (포스코) 흑 전지용 5단 (조선대) 결과 집을 지켜보니 백의 2집 반승,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던 흑으로서의 아까운 한판이었다. 일본의 본인방 타이틀을 9연패했던 다카가와와 9단은 일찌기 '끝내기가 진짜 실력이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이창호가 '신산'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세계를 제패한 원동력도 정밀한 형세판단이 뒷받침된 '끝내기의 달인'이었기에 가능했다. 날고 기는 프로들도 끝내기는 길로 어려운 부분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 판은 쉬운 끝내기만 남아있던 장면에서도 전지용 5단이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서 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바둑소식 박영훈, GS칼텍스배 4연승 박영훈 9단이 25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본선리그 13국에서 최명훈 9단을 257수만에 흑 5집 반으로 꺾었다. 리그 전적 4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영훈 9단은 최철한 9단, 조한승 9단, 홍성지 5단과 대국을 남겨두고 있다. 박 9단은 이 승리로 급번 26승 11패를 기록했으며, 리그 5전 전패를 당한 최명훈 9단은 차기대회 본선시드를 받기 어렵게 됐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5천만원이다. 모든 대국은 제한시간 각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로 진행된다. 타이틀 보유자는 이세돌 9단.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34> 오하오우 니혼고 <934> 니하오 쥬구워 <125> 한자 이야기 <551>

How long does it last? 얼마동안 계속됩니까? A: It's still raining. Is it the rainy season now? B: Yes, it is. We call it 'rainy spell in summer'. A: How long does it last? B: Usually it lasts from about mid-June to mid-July, but it doesn't necessarily rain everyday. Though it's an unpleasant season, it's necessary for rice planting. A: 여전히 비가 오고 있네요. 지금이 우기입니까? B: 네, 저희는 요즘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A: 얼마동안 계속됩니까? B: 대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일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겨운 계절이지만, 벼농사에 필요하죠. How long? : 얼마동안~입니까? last : 지속하다, 계속하다 rice planting : 벼농사 It's drizzling. : 이슬비가 오네요. It's rains off and on :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これ お姉(ねえ)ちゃんのお下(さ)がりよ 이거 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A: あら、陽子ちゃんのおかわいいわね。 B: これ お姉(ねえ)ちゃんのお下(さ)がりよ。 A: そうなの? 染(し)みも全然(ぜんぜん)ついてないし、きれいだからオネエ(おねえ)ちゃんとお(お)もったわ。 B: お姉(ねえ)ちゃん氣(き)に入(い)らなくて、あまり着(き)なかったんだって。 A: 아, 요우코 옷 귀여운데. B: 이거 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A: 그렇구나. 얼룩도 전혀 없고, 깨끗해서 새것이라고 생각했어. B: 언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지 입지 않았대. お姉(ねえ)ちゃん: 언니 お下(さ)がり: 물림 染(し)み: 얼룩 かと思(おも)った: ~가 생각했다

我买药 약을 사다 A: 小姐, 我买药。 Xiǎo jiě, wǒ mǎi yào. 시아오 지에, 워 마이 야오 B: 请问您买什么药? Qǐng wèn nín mǎi shénme yào? 칭 웬 닌 마이 셴 메이 야오? A: 我买消炎药, 我的嗓子有点儿发炎。 Wǒ mǎi xiāoyán yào, wǒ de sāngzi yǒudiǎnr fāyán. 워 마이 씨야오옌야오, 워 더 샹즈 여우디얼 파옌. B: 这种药效果不错。 Zhè zhǒng yào xiǎoguǒ búcuò. 씨 좡 옌 씨야오 구워 부 좡워. A: 아가씨, 저 약 좀 사려고 하는데요. B: 실례지만 어떤 약 사시게요? A: 저 소화제 사려고요. 목에 염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B: 이 약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消炎药 [xiāoyányào] 소화제 [shōwàizhè] 嗓子 [sǎngzi] 목 [mù] 发炎 [fāyán] 염증을 일으키다 [yányèng wù yǐngqǐ] 效果 [xiǎoguǒ] 효과

首鼠兩端 (수서양단) 머리수, 쥐서, 두량, 끝단 수서양단(首鼠兩端)은 쥐가 머리와 내밀고 이쪽저쪽 엿보면서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으로 우유부단(優柔不斷)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쥐의 다산(多産)과 그 근면성(勤勉性)을 높이 평가하여 인간의 띠를 나타내는 12지지(地支)에 넣을 정도로 친숙하게 여겼다. 하지만 쥐는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글을 출입할 때면 몇 번이고 들락거리면서 바깥의 동정을 살핀다. 전한 무제 때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과 무안후(武安侯) 전분(田汾)은 세력다툼을 계속하였다. 어느 날 무안후의 결혼식 축하연 자리에서 위기후 측 사람들을 처벌대우하자 위기후 친구인 관부(灌夫)가 술기에 행패를 부렸다. 무안후는 관부를 옥에 가두고 사형하려 하자 위기후는 관부를 두둔하고 무제에게 상소를 올려 이 문제는 조신들의 공론에 붙이게 되었다. 이때 어사대부 한안국(韓安國)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양쪽 말에 다 일리가 있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하의 재단(裁斷)을 바랄 뿐입니다." 불쾌하게 여긴 무제(武帝)는 결국 토론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토론이 끝나자 전분은 한안국을 불러 호통을 쳤다. "이놈아! 너는 뭐가 무서워서 구멍에서 나갈까 말까 하는 쥐에게서 행동하느냐?"(史記)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